

# “올림픽은 전쟁” 창으로 창 꺾는다



여자배구, 내일 오전 8시30분 '강적' 러시아와 격돌  
'세계 3대 공격수' 김연경-코셀레바 주포 대결  
김연경 "꼭 메달 목에 걸겠다" 필승 의지 다져

한국을 대표하는 '배구 여제' 김연경(28·터키 페네르바체)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공격수 타티야나 코셀레바(28·터키 엑사비사시)와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첫판에서 속적 일본을 꺾고 상쾌하게 출발한 한국은 9일 오전 8시 30분(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냥지뉴에서 러시아와 A조 2차전을 펼친다. 객관적인 전력과 통산 전적은 한국이 절대 열세다.

한국은 역대 러시아전에서 7승 44패로 철저히 패했다. 올림픽에서는 7번 만나 모두 패했다. 세계랭킹도 러시아가 4위, 한국은 9위다.

하지만 한국에는 구레 출신의 김연경이 있다. 구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안산에서 배구를 시작했던 김연경은 세계가 인정하는 현역 최고 여자배구 선수로 성장했다. 연봉도 120만 유로(약 15억 6000만원·추정치)로 세계 1위다. 김연경은 6일 일본과 첫 경기에서도 30점을 올리며 배구 여제의 위용을 과시했다. 김연경의 활약에 힘입은 한국은 일본과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1(19-25 25-15 25-17 25-21)로 역전승했다.

러시아는 대표팀에 포함된 모두가 '세계적인 선수'다. 특히 코셀레바는 김연경, 주팅(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공격수'로 꼽힌다.

코셀레바는 7일 열린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 12득점했다. 이날 러시아는 약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선수들 두루 기용하며 한국전을 대비했다. 코셀레바도 가볍게 몸만 풀었다.

A조에는 한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브라질이 있다.

러시아는 한국을 제물로 2승을 거둔 뒤, 브라질과 조 1위 다툼을 펼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러시아를 잡으면 8강행의 9부 능선을 넘는다. 시선은 김연경과 코셀레바의 주포 대결에 쏠린다.

코셀레바는 걸출한 공격수 나탈리아 곤차로바와 짝을 나눌 수 있다. 김연경은 코셀레바에 비해 공격 점유율이 높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도 양효진과 김희진 등이 김연경을 도울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다.

승리 확률은 여전히 러시아가 높다. 하지만 여자배구 최고 선수 김연경이 코셀레바를 압도한다면 이번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편 일본과의 경기가 끝난 뒤 김연경은 "4년 전 일본과 3-4위전 패배를 드디어 되갚았다"며 "그때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은 이날 경기 초반 주춤하며 1세트를 내줬다.

김연경은 "내 공격이 생각만큼 터지지



러시아 공격수 타티야나 코셀레바.

않은 탓이었다"며 "1세트가 끝나고 선수들에게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자. 분위기가 괜찮다'고 말했는데 정말 분위기가 살았다"고 웃었다.

이 미소를 되찾고자 김연경은 4년 동안 절치부심했다.

그는 "런던올림픽은 정말 아쉬웠다. 그때 정말 메달을 따고 싶었는데..."라고 곱씹으며 "그래서 이번 올림픽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올림픽은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꼭 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연합뉴스

## 여자유도 20년만에 경사... 정보경 '깜짝 은메달'

세계 1위 꺾고 결승행...아르헨 파레토 벽에 막혀

'깜짝 메달'이었다. 세계랭킹 8위에 올랐던 무대는 처음이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동메달이 최고 성적이었다. 하지만 '작은 거인' 정보경(25·안산시청)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선수단에 대회 1호 메달을 선물하며 스타탄생을 알렸다.

정보경은 7일 열린 2016 리우 올림픽 여자 유도 48kg급 결승에서 세계랭킹 3위 파올라 파레토(아르헨티나)에게 절반패를 당해 은메달을 따냈다.

금메달을 놓친 아쉬움에 정보경은 끝내 울음보가 터졌고, 믹스트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한바탕 뜨거운 눈물을 쏟아낸 뒤 인터뷰에 나섰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대표팀 선배들의 훈린 파트너 역할을 했지만 런던까지 동행하지 못한 정보경은 4년 만에 당당히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 무대에 나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부끄럽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보경의 별명은 '작은 거인'이다. 그는

이번 리우올림픽에 나선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키가 작다. 공식 프로필 상 그의 키는 153cm. 하지만 그는 매트에만 올라서면 '여전사'로 변신한다.

1991년 4월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정보경은 웅상여자중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유도에 입문했다. 경남체고와 경기대학교에 다닌 정보경은 안산시청에 등지를 틀고 기량이 급상승했다.

정보경은 2011년 8월 세계선수권대회로 국제대회에 데뷔했지만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해 2월 부다페스트 월드컵에서 처음 우승한 정보경은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긴 했지만, 굵직한 대회에서는 좀처럼 금메달을 챙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보경은 항상 '2%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대회에 나서기 전까지도 금메달 후보에서 제외된 정보경은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정보경은 결승 진출의 최대 고비였던 세계랭킹 1위 문크르바트 우란체체그(몽골)와 대결에서 승리하며 금빛 희망을 품었지만, 파



레토의 벽을 넘지 못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미치지 않고선 성공할 수 없다"는 좌우 명대로 정보경은 힘겨운 지난 4년의 훈련에 미쳐서 지내왔고, 사실상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를 은빛으로 장식했지만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연합뉴스

## 양학선 빈 자리 크네

남 기계체조 단체·개인전 전원 예선 탈락

한국 남자 기계체조 대표팀이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전원 예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양학선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6~7일(이하 한국시간) 남자 기계체조 단체전 예선에서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6개 종목 합계 257.645점을 받는 데 그쳤다. 한국은 총 12개국이 참가한 단체전 예선에서 11위로 처져 상위 8개 팀이 겨루는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도마의 신' 양학선이 빠진 상황에서도 단체전 7위로 리우행 티켓을 따냈다. 그러나 정작 올림픽 본선에서 대표 선수 전원이 컨디션 난조를 보여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유원철(경남체육회), 이상욱(전북도청), 박민수(한양대), 신동현(국군체육부대), 김한솔(한국체대)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도마부터 시작해 평행봉, 철봉, 마루

운동, 안마, 링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연기를 펼쳤다.

'제2의 양학선'으로 가장 기대했던 김한솔은 자신의 주 종목 도마 1차 시기에서 착지 때 감점을 크게 당하며 12.633점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김한솔은 2차 시기에서 14.866점으로 분발했으나 1~2차 시기 합계 13.749점으로 최하위인 17위를 기록, 상위 8명이 오르는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북한의 체조 영웅 리세광은 도마 예선에서 15.433점으로 1위로 통과해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김한솔은 도마 외에도 감점을 보인 마루 운동에서마저 14.266점으로 35위까지 밀려났다. 유원철과 이상욱, 신동현 역시 모두 종목별 결승 진출 기회를 잡지 못해 대표팀은 양학선의 부재를 실감해야 했다.

/연합뉴스

진종오·박태환 메달 실패

진종오는 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슈팅 센터에서 열린 2016 리우 올림픽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139.8점으로 5위에 그쳤다.

주전공은 50m 권총이다. 50m 권총 세계랭킹은 1위지만 10m 공기권총은 4위다. 진종오는 당장 10일 같은 장소에서 50m 권총 경기에 나선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이번에도 50m 권총 금메달을 목에 걸면 세계 사격 역사에 전무후무한 3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한편 어렵게 4번째 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은 박태환(27)도 첫결승에서 크게 휘청거렸다.

박태환은 7일 열린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에서 3분45초63의 기록으로 전체 참가선수 중 10위에 처졌다.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이 좌절되면서 이 종목에서 3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어버리던 그의 꿈도 깨졌다.

/연합뉴스

6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냥지뉴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여자배구 예선 한국 대 일본 경기. 김연경이 공격 성공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